인간실격 논제

* **자유논제 -**

1. 요조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p.13) 라고 말합니다. "서로 속이면서 살아가는, 혹은 살아갈 자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이야말로 난해한 것"(p.27)이라고 말하는데요. 인간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이 있지만 단념할 수가 없어 '익살'이라는 실로 간신히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인간을 바라보는 요조의 이런 생각을 어떻게 보시나요?

|  |
| --- |
|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광대 짓이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사람이란 것이 알 수가 없어졌고, 저 혼자 별난 놈인 것 같은 불안과 공포가 엄습할뿐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웃과도 거의 대화를 나누지 못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체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저의 최후의 구애였습니다. 저는 인간을 극도로 두려워하면서도 아무래도 인간을 단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광대라는 가는 실로 간신히 인간과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늘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필사적인, 그야말로 천 번에 한 번밖에 안 되는 기회를 잡아야 하는 위기일발의 진땀 나는 서비스였습니다. (p.16) |

**선택논제**

1. 인간실격의 저자 '다자이 오사무'는 거의 반 평생을 경제적으로 생가에 의지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경제적 독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적 독립이 이뤄질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다자이 오사무에게 가족은 절대적이고 삶에서 떨어트릴 수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소설에서도 주인공 요조가 가족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신적 독립을 위해서라면 물질적 독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
| --- |
| 또 저는 가족한테 어떤 꾸중을 들어도 말대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사소한 꾸중이 저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이 강하게 들려 저를 미칠 지경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말대꾸는커녕 그 꾸중이야말로 말하자면 '만세일계(万世一系), 즉 고대로부터 단일 계통을 이어온 인간의 '진리'임에 틀림없다, 나한테는 그 진리를 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더 이상 인간과 더불어 살 수 없는 게 아닐까'라고 확신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싸움도 자기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p.17) |